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가)를

제/안/함/니/다!!

1. 왜 대책위를 제안하는가?

IMF라는 경제위기의 상황은 서물역 지하도를 homeless들로 가득 메웠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량의 실업은 단지 일자리를 잠시 잃는 것을 넘어서 당장 먹고살기의 갑갑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 하루 일거리를 찾아 거리고 거리로 나서는 하루살이의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상처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례들은 이제 더 이상 주위를 놀랍게 할만한 사건도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운이나쁜 몇몇 소수만의 문제가 아님을,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는 삶과 고통의 무게와는 무관하게(?) 신문, 잡지, 메스컴등 온갖 보수언론들은 때론 당근으로, 때론 채찍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다함께 고통분담하여 극복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세없이 경제망국에 대해 언론을 떠들고 있으며 정부도, 재계도, 재벌도, 노동계도 설세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성들의 문제는 '보이지 않게' 가려지고 있습니다. 여대생은 IMF의 일차적인 피해군으로 아예 취직되어 보지도 못한 실정이며, 취업했던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는 '확실한 부당해고'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교묘하게 자본주의의 성차별구조를 이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은폐하고 민중들의 저항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업율이 계속 증가하면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심해지니 이의 방지를 위해 실업율을 낮출 것을 그 전략으로 택하는데 그 대상, 즉 IMF의 충격을 흡수할 충격흡수층으로 여성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직장으로부터 내쫓고, 여성들을 위한 실업정책, 고용정책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서 대다수의 여성을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근로자로, 전업주부로 만듦으로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킨다면 전체적으로 통계수치화되는 실업률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희생양의 희생양으로 위치지우면서, 한편으론 가장이데올로기가 온갖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업대책부터 대출자금까지 모든 것이 '(남성)가장'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마치 실업자의 문제는 '우리 아버지'들만의 문제인양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개숙인 아버지, 아빠 힘내세요, 실직과 함께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물론 가장 남성들의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데올로기속에 여성노동자

의 생존권, 노동권은 전혀 '문제시'되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한편으론 우선하고 대상이며, 한편으론 실질할 혹은 실직 가능한 남성들을 위해 짝소리 말고 감정서비스(화목한 가정의 허구속에 강요되는 여성의 역할들) 노동을 제공해야 하며, 남편이 실직한 경우 저임금+단순노동+불안정 직종으로 내몰려 사실상 가족의 최종생계유지의 책임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곳 어디에서도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말하고 표현하려 합니다.

여성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성의 생존권, 노동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주장하고 실천하려 합니다.

2.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는 그동안 4회정도의 모임을 진행했었습니다. 여성노동권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대중적으로 담론화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들은 이러한 비슷한 문제의식(현시기-IMF경제위기상황- 여성운동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과 여성의 입장에서 노동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찾기 어려웠고, 이 시기에 이대 대학원 여성학과 학생중 여성노동 수업에 받는 분들, 조순경 교수님의 강연회 및 조언, 노동절을 계기로 여성노동권에 대해 문제제기 했던 여성모임 살맛나는 세상의 활동, 각 학교에서의 여성운동단위의 실천 등을 계기로 하여 이 먹고살기 대책위는 꾸려질 수 있었습니다.

3. 그동안 무엇을 했나?

이렇게 모여진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는 먼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었고, 일단 보여지지 않고, 말해지지 않는 여성의 문제를 여성스스로(여대생의 입장에서 여성전체의 문제를) 문제제기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주장을 담은 글과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 활동에 대한 제안, 여성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본 기획글, 여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인쇄자보 등을 통해 1차적인 문제제기를 수행했었습니다.

또한 여성민우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98예비취업여대생 사회진출을 위한 캠프 선전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4.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는 현재 비가시화되는 여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여성노동의 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담론화해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전혀 문제화되지 않고 있는 여대생의 문제를 여대생의 현실속에서 말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고 더 나아가 모든 여성의 진정한 생존권, 노동권 실현을 위해 현실에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는 6월 25일 대책위 발족식 및 선포식을 계기로 그동안 학교별로 진행되었던 활동들을 총화하고 대책위를 보다 많은 단위들,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광범위한 제안을 통한 대중적 확장을 꾀하고자 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워나감으로서 이후 활동을 힘차게 결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의 문제를 대학을 넘어 사

회로까지 문제제기하기 위해 거리선전전 등을 통해 확산시켜나가자 합니다.

→ 발족식 기획안은 별첨.

발족식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대책위의 활동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가는 시기가 될 것인데, 7월 17-18일에 민우회와 여대생단위가 함께 준비하는 캠프가 있을 예정인데, 캠프준비를 함께해나가기로 했습니다(구체적인 캠프의 실무 준비라기보다는 캠프를 전후로하는 대학내에서 여성노동권의 문제를 여대생의 현실에 기반하여 어떻게 실물화시켜나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며 이것이 캠프 속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

보다 구체화된 계획은 발족식 이후 모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학내 여성운동 단위 및 학우들에게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대하고 튼튼한 조직이 필요하다고보다는 문제의식에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의 실질적 연대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동의하시는 사람은 25일 발족식에 꼭 참석합니다. 그리고 발족식 이후 보다 확장된 단위들과 함께 대책위의 이후 활동을 논의하는 자리를 27일 6시 이대여성위원회(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공고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달라! -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 발족식

일시 : 6월 25일 목요일 1시

장소 :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 전체모임

- 동의하는, 관심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 모이는 날

일시 : 6월 27일 토요일 6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글을 읽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이나 하고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나우누리(ID-동덕총학/여성행동위원회 앞)으로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361-3645),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360-3648), 동덕여대
여성행동위(940-4320:총학생회-여성행동위를 찾으세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달라!

-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 발족식

▶ 의의

경제위기속에 가리워지고 희생양의 희생양의 악용되는 여성의 문제를 전면화시키고 현시기 우리 여성들의 주장을 공론화시키며 이후 활동을 힘차게 결의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위기의 담론속에 보이지 않고 가리워진 여성의 문제를 전면화 시키자!

아무런 대책없는 여대생의 현실을 여대생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후의 실천을 위한 단위로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를 보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

여성문제를 드러내고 실천함에 있어 대학을 넘어선 직접행동을 실천하자!

▶ 명칭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달라!! -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 발족식

▶ 구체적인 프로그램

1. 여성 노래, 율동 배우기

- 힘모아 힘을줘(수원대학교 참여학생회)

2. 여성의례

3. IMF와 여성의 현실

- 왜 어디에서도 여성의 문제는 얘기되지 않는가?

연대발언 : 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여성노동자회(미정)

4. 퍼포먼스

- 여성의 현실과 대안을 표현함(이화여자대학교)

5. 여성노동권의 진정한 확보를 위하여

- 대책위 발언(동덕여자대학교 여성행동위원회)

6. 대책위 기간활동보고 및 이후 활동에 대한 제안(산업대 여성모임(준))

7. 우리의 주장

- 성명서 낭독(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8. 자유발언대

- 우리의 얘기를 마음껏 던지자!

9. IMF시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자!!

- 맞아맞아 베스트 5 / 물총쏘기(연세대학교 열세번째)

10. 노래와 합성

11. 거리선전전

- 신충일대

전체진행 : 연세대학교 참여학생회

▶ 일시

6월 25일 목요일 1시

▶ 장소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많은 단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6.25를 연세대학교에서....

문의사항은 위(먹고살기 대책위 제안서)와 동일한 곳으로 연락바랍니다.